

우리 사회에서 독서란 지적이며 정서적인 대화가 아니라 짜증나게 반복되는 구호일 뿐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갈 2세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렇게도 책을 안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문을 쓰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의문날 때가 적지 않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독서 교육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

우리네 독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독서와 독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다. 독서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당연히 독서 교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책을 읽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발상까지 만연된 현실 또한 독서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 사회가 창의성 대신 암기력을 최고 능력으로 삼아왔던 현실과도 직결된다. 이른바 명문대생의 상당수가 수험서만을 신주 단지 모시듯 품고 도서관을 꽉 채우고 있는 장면은 얼마나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가.

독서교육을 늘 즉각적인 성과와 연관시키는 태도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대개 학교 안팎의 독서관련대회에서 어떤 상을 얼마나 탔느냐가 초중고교 독서교육의 충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일쑤다. 과연 그런가? 이런 풍토 속에서는 진지하게 저자와 대화하려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독서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일방적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수하면서 마침내 상을 타오는 병사들만을 낳을 뿐이다.

간혹 기특하게도 책을 좀 읽었다고 나서는 학생들도 적절한 책을 찾기가 힘들다. 베스트셀러와 책광고만 난무할 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권장도서목록은 드물다. 그저 고전을 읽으라며 현학적인 도서목록을 들이미는 명망가들은 많이 있지만, 책과 진정으로 만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장

독서가 '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정보활용 능력으로 독서를 인식해야

허병두 | 서울송문고 교사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대표

독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다. 더구나 책을 읽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발상까지 만연해 있다. 올바른 독서교육은 독서의 의의나 효과를 학생들 스스로 체득하게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독서교육의 중심에 학생들을 세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도서목록들은 접하기 어렵다.

더구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 제시하는 권장도서목록들이 교육 과정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대학에서 출판한 여러 권장도서 목록 해제서들을 확인해보라. 교육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작품 요약과 해설, 간단한 정보 제공에 머물 정도의 수준이다. 독서는 그저 교양의 차원일 뿐, 교육의 차원에 있지 않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학생이 독서교육의 중심 돼야

초중고교의 독서교육이 주로 국어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독서 교육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국어 관련자들이다보니, 전교적이며 전교과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시도하고 성과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학교의 독서교육이 교실 중심으로 고안되고 실천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모름지기 독서교육은 교실의 안팎,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시돼야 한다.

TV와 인터넷 때문에 책도 안 읽고 독서교육도 하기 힘들다고 한다. 사실 책 읽을 기회를 예전과 같이 확보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수험준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돕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사진은 송문고 도서반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독서토론 모습.

하지만 진짜 문제는 TV와 인터넷, 나아가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을 독서의 적이라고 규정할 뿐 독서의 개념과 독서교육에 대한 고정 관념을 쉽사리 탈피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다.

궁극적으로 독서교육은 독서의 의의나 효과를 학생들에게 체득하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독서교육을 전개해야 하는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저변을 넓히고 단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책에만 국한시켰던 독서의 범위를 뉴미디어 전반에까지 넓히고 독서를 정보활용 능력의 하나로 이해해 증진해야 한다. 또한 독서교육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야 한다. 독서교육의 기반 역시 교실에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돕는 독서교육이 돼야 한다.●